국어 문법 이해·적용 학습지

담화편

맥락 · 발화 의도 · 담화를 잇는 표현 · 협력의 원리 · 공손성의 원리

이해·적용 60문항 | **선택형 30문항 · 서답형 30문항**

대치동 재우쌤

한눈 지도 — 묶음 목차

묶음	핵심 질문	문항
A1	글이나 혼자 하는 말도 담화일까?	001~005
A2	'그때'와 '여기'는 어디에서 뜻을 찾을까?	006~010
A3	같은 문장은 언제 다른 부탁이 될까?	011~015
B1	'그것'은 물건일까, 앞의 이야기일까?	016~020
B2	빼거나 이어도 뜻이 분명할까?	021~025
B3	'그리고'만 붙이면 한 편의 글이 될까?	026~030
C1	많이 말하면 협력한 것일까?	031~035
C2	관련 있는 말이면 충분히 분명할까?	036~040
C3	바로 답하지 않으면 소통에 실패한 걸까?	041~045
D1	부담을 줄일까, 내가 맡을까?	046~050
D2	칭찬·겸손·동의는 같은 배려일까?	051~055
D3	관계를 배려하면 언제나 같은 말을 써야 할까?	056~060

(가)·(나)는 비교 자료, ㉠·㉡은 살펴볼 표현, [ ]는 지정한 부분입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담화는 어떻게 뜻을 전할까?

담화

화자(필자) · 청자(독자) · 내용 · 맥락

01 해석의 근거

맥락: 문맥 / 상황 / 사회·문화

문장 유형 + 상황 → 직접·간접 발화의 의도 해석

02 담화를 하나로 묶는 것

지시 표현 · 대용 표현 · 생략 · 접속 표현

부분을 잇는 표현과 관계 → 응집성

하나의 주제·목적을 중심으로 → 통일성

03 대화의 원리

협력: 관련성 · 양 · 질 · 태도(방법)

공손성: 요령 · 관용 · 찬동 · 겸양 · 동의

관계의 배려: 체면 유지 · 담화 관습

각 가지는 함께 작용한다.

A1 글이나 혼자 하는 말도 담화일까?

개념ID: 문법08-01 · 문법08-02

짧은 답 글이나 혼자 하는 말도 상대에게 내용과 목적을 전달하면 담화가 될 수 있다.

정의

발화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한 말이다. 담화는 맥락 속에서 발화나 문장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단위이다.

구성 요소	뜻	글일 때
화자	말하는 사람	필자(글쓴이)
청자	듣는 사람	독자(읽는 이)
내용	전하려는 생각·정보	같음
맥락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배경	같음

구별	무엇을 보는가?	예
문장	문법적으로 이루어진 언어 단위	예문 카드의 '문이 닫혔다.'
발화	실제 상황에서 누군가 한 말	안내원이 관람객에게 '문이 닫혔습니다.'라고 말함
담화	맥락 속에서 내용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안내와 '다음 입장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이 이어짐

Q 글도 담화일까?

안내문·편지·설명문도 필자가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담화이다. 말할 때는 화자·청자, 글에서는 필자·독자라고 부른다.

Q 혼자 말하면 담화가 아닐까?

행사 안내 방송이나 연설도 청자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청자가 그 자리에서 말로 답해야만 담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Q 한 발화만으로도 담화가 될까?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하면 하나의 발화도 담화로 보기도 한다. 담화를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이어진 단위로 설명하기도 하므로, 개수보다 실제 내용과 맥락의 연결을 살핀다.

비유

문장은 진열대에 놓인 물건, 발화는 누군가에게 실제로 건넨 선물, 담화는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 전체와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안내문은 읽는 사람이 나중에 와도 뜻을 전할 수 있다.

오해 ×	바른 판단 ✓
담화는 두 사람 이상이 여러 문장을 말해야 성립한다.	말이나 글이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하는지 본다.

담화의 구성 요소를 찾아보자

맥락: 전시실 입구 · 관람객에게 운영 상황을 알림



닫힌 전시실 문 안내원 관람객

내용

"문이 닫혔습니다."

화자: 안내원

청자: 관람객

운영 상황을 전달함

관람객: "다음 입장은 언제인가요?"

답할 때에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바뀐다.

글에서는 화자 → 필자(글쓴이) / 청자 → 독자(읽는 이)

참여자 · 내용 · 맥락을 함께 살핀다.

001 선택형 **자료를 이해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달리기 출발선에서 심판이 선수들에게 “준비!”라고 외쳤다. 선수들은 출발 자세를 취했다.

① 심판이 선수들에게 준비 여부를 묻는 질문의 의도를 드러냈다.

② 선수들이 취한 자세가 화자이고 심판이 외친 말은 청자이다.

③ 심판과 선수들의 관계는 앞뒤 말로 이루어진 언어적 맥락에 해당한다.

④ 실제 출발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준비를 요구한 말이므로 발화이다.

⑤ ‘준비’의 사전적 뜻이 이 상황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알려 준다.

답 ____

002 서답형 **자료의 화자(필자)·청자(독자)·담화의 목적을 각각 쓰자.**

작은 도서관 입구에 운영자가 “오늘은 실내 점검으로 오후 2시에 문을 엽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화자(필자)	
청자(독자)	
담화의 목적	

003 선택형 **발화와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행사 안내 방송에서 방송 내용을 쓴 사람은 독자에 해당한다.

② 방송의 목적은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구성 요소이다.

③ 행사 안내 방송은 청자가 즉시 답하지 않아도 내용을 전달하는 담화가 될 수 있다.

④ 안내문에서 개관 시간은 맥락이고 안내문을 붙인 장소는 내용이다.

⑤ 안내문은 완성된 글이므로 독자가 읽는 장소는 해석 근거에서 제외한다.

답 ____

004 서답형 ㉠에서 생략된 말을 채워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어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하나 쓰자.

> 급식실에서 배식 담당자가 빈 식판을 든 학생에게 “밥을 더 줄까요?”라고 물었다. 학생이 식판을 앞으로 내밀며 ㉠“조금만요.”라고 답했다.

완전한 문장	
판단 근거	

005 선택형 **어떤 말이나 글이 담화인지 판단할 때 살펴야 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 문장 성분이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문장들이 같은 종결 어미로 끝나는지 확인한다.

③ 화자·청자·내용·맥락을 살펴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④ 발화에 쓰인 단어의 사전적 뜻을 더하여 전달 목적을 정한다.

⑤ 참여자 수를 세어 두 사람이 번갈아 말한 자료를 담화로 분류한다.

답 ____

A2 ‘그때’와 ‘여기’는 어디에서 뜻을 찾을까?

개념ID: 문법08-03

짧은 답 **앞뒤 말과 현장 상황, 공유하는 관계·관습에서 필요한 단서를 찾는다.**

정의

맥락은 말의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비언어적 배경이다.

맥락	확인할 단서	예
언어적 맥락 (문맥)	앞뒤의 말·글	‘[수요일]에 만나자. 그날 자료를 줄게.’ → 그날 ← [수요일]
상황 맥락	화자·청자와 그 관계, 시간·장소·행동·목적	안내원의 손짓이 가리키는 [바닥 표시] → 여기 → [바닥 표시]
사회·문화적 맥락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습·문화·역사적 배경	웃어른께 높임 표현을 쓰는 언어 관습

Q 맥락과 문맥은 어떻게 구별할까?

앞뒤의 말·글을 ‘문맥’으로 따로 다루고, 맥락을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누기도 한다. 여기서는 문맥을 언어적 맥락으로 함께 표시한다.

Q 여러 맥락이 함께 작용할까?

- ‘그날 여기서 뵙겠습니다.’의 ‘그날’은 앞말, ‘여기’는 앞말이나 현장 장소에서 단서를 찾는다.
- 지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는 상황 맥락이다.
- 웃어른을 높이는 공동체의 관습을 살피면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한 것이다.

Q 글과 말은 단서가 다를까?

매체	활용하기 쉬운 단서·유의점
대면 대화	억양·표정·손짓과 즉각적인 반응
나중에 읽는 공지	독자가 현장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어 날짜·장소를 밝혀야 함
채팅	글로 쓰지만 즉시 답할 수 있어 말과 글의 특징이 함께 나타남

비유

맥락은 퍼즐 조각을 놓을 배경판과 비슷하다. 같은 조각도 주변과 맞추어야 위치를 알 수 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만 뜻이 통하는 것은 아니며, 해석에 필요한 단서를 골라야 한다.

오해 ×	바른 판단 ✓
맥락의 종류는 하나만 작용하므로 나머지 단서는 무시한다.	여러 맥락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참여자의 관계와 공동체가 공유하는 관습은 구별한다.

뜻을 찾는 맥락의 단서

"그날 여기서 뵙겠습니다."

같은 발화에서도 해석의 근거는 여러 곳에 있다.

① 앞뒤 말·글 → 언어적 맥락(문맥)

앞말: "[수요일]에 만나자."

그날 ← [수요일]

② 지금의 참여자·장소 → 상황 맥락



여기 → [손짓이 가리킨 장소]

지금 화자·청자와 그 관계도
상황 맥락의 단서이다.

③ 공동체의 관습 → 사회·문화적 맥락

웃어른께 높임 표현을 쓰는 공유된 관습

뵙겠습니다 ← [공동체의 높임 관습]

구체적인 두 사람의 관계와 공동체의 관습을 구별한다.

006 서답형 **㉠이 가리키는 때와 활용한 맥락의 종류를 쓰자. 맥락은 A2 표의 세 가지 중에서 쓰자.**

"이번 발표는 금요일이야." "그럼 ㉠그날 아침에 자료를 나누자."

가리키는 때	
맥락의 종류	

007 선택형 **㉠의 위치를 직접 알게 해 주는 단서와 맥락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별도의 앞선 장소 설명은 없었다. 체험관 직원이 손으로 파란 원을 가리키며 "㉠여기에 서 주세요."라고 말했다.

① 직원이 파란 원을 가리키는 손짓 — 언어적 맥락
② 직원과 손님의 관계 — 사회·문화적 맥락
③ 직원이 파란 원을 가리키는 손짓 — 상황 맥락
④ 손님에게 높임말을 쓰는 관습 — 사회·문화적 맥락
⑤ 앞에서 소개한 장소 — 언어적 맥락

답 ☐

008 서답형 **공지문에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두 개를 찾아, 주어진 날짜·시각·장소를 넣어 문장 전체를 고쳐 쓰자.**

10월 13일에 작성한 공지: "내일 여기서 안전교육을 합니다." 이 공지는 여러 건물 게시판에 붙어 10월 14일에도 읽힌다. 교육은 10월 14일 오후 3시, 동쪽 건물 1층 강당에서 열린다.

혼동할 표현 두 개	
고친 공지문	

009 선택형 **맥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화자와 청자의 친밀한 관계는 언어적 맥락에 속한다.

② 공동체가 공유하는 높임 관습은 지금 말하는 장소와 같은 상황 단서이다.

③ 앞뒤 말은 사회·문화적 맥락이고 사회의 가치관은 언어적 맥락이다.

④ 채팅은 문자로 표현되므로 바로 이어지는 상대의 답은 상황 파악에 쓰기 어렵다.

⑤ 앞의 약속 날짜는 언어적 맥락, 현장 손짓은 상황 맥락의 단서이다.

답 ( )

010 서답형 **민호가 친구의 말을 고쳐 줄 때 활용한 맥락을 A2 표의 세 가지 중에서 고르고, 근거를 쓰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친구가 처음 만난 할머니께 "이름이 뭐야?"라고 물었다. 옆에 있던 민호가 "할머니께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여쭈어야 해."라고 알려 주었다.

맥락의 종류	
근거	

A3 같은 문장은 언제 다른 부탁이 될까?

개념ID: 문법08-01 · 문법08-03

짧은 답 **문장에 드러난 뜻을 확인한 뒤, 상황의 근거로 가능한 의도를 좁힌다.**

정의

직접 발화는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고, 간접 발화는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다른 발화이다.

발화	문장 유형과 의도	예
직접 발화	일치함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며 '문을 닫아라.'라고 함
간접 발화	다름	추운 방에서 창가의 상대에게 '방이 좀 춥네.'라고 하여 창문을 닫아 달라고 요청함
간접 발화	다름	짐을 든 사람이 '문 좀 열어 줄래?'라는 의문문으로 요청함

발화 의도에는 정보 전달·질문·요청·명령·약속·제안·경고 등이 있다.

① 문장의 뜻
무엇이라고 말했나?

→

② 상황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했나?

→

③ 의도
무엇을 바라나? 단서가 부족하면 '~일 수 있다'로 판단

같은 표현	상황	가능한 주된 의도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음향 점검자가 상태를 기록하는 동료에게 말함	현재 상태를 알림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청중이 발표자에게 말함	더 크게 말해 달라고 요청함

Q 능력을 물으면 부탁일까?

'가방을 옮겨 줄 수 있니?'는 상황에 따라 부탁일 수도, 실제 능력을 확인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 문장 형식만으로 의도를 확정하지 않는다.

Q 속마음까지 알 수 있을까?

부탁하는 행동은 해석할 수 있어도 화자가 상대를 싫어한다는 감정까지 단정하려면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비유

문장 뜻이 겉봉이라면 의도는 상황에 맞추어 읽는 용건과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겉뜻을 무시해 마음대로 속뜻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있는 근거로 해석해야 한다.

오해 ×	바른 판단 ✓
평서문은 정보만 알리고, 의문문은 정보만 묻는다.	문장 형식과 발화 의도는 구별하며 상황의 근거로 해석한다.

같은 표현, 다른 발화 의도

① 음향 점검: 장비 상태를 기록하는 중

점검자: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음향 점검자 기록하는 동료

직접 발화(평서문 → 알림): 현재 상태 알림

② 발표 청취: 발표자에게 말을 건네는 중

청중: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청중 발표자

간접 발화(평서문 → 요청): 더 크게 말해 달라는 요청일 수 있음

문장 유형과 의도가 다르면 간접 발화이다.

011 선택형 **주어진 상황에서 화자의 주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버스 통로에 가방이 놓여 있다. 내리려는 승객이 가방 주인에게 통로를 가리키며 “지나갈 자리가 없네요.”라고 말했다.

① 가방을 옮겨 통로를 비워 달라는 요청을 평서문으로 전함

② 평서문을 사용하여 가방 위치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함

③ 가방 주인에게 통로가 좁은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질문함

④ 자신도 함께 가방을 옮기자는 청유를 직접 표현함

⑤ 주인에게 가방을 옮기라고 명령문으로 직접 지시함

답 ____

012 서답형 **두 상황에서 같은 말의 주된 의도를 각각 쓰자.**

공통 표현: “불이 아직 켜져 있네.”

(가) 야간 순찰자가 조명 상태를 조사하는 동료에게 건물을 가리키며 말한다.

(나) 잠들려는 사람이 전등 스위치 옆에 있는 가족에게 스위치를 가리키며 말한다.

가의 의도	
나의 의도	

013 선택형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체육관으로 들어온 사람이 “덥네요.”라고 말했다. 누구를 향해 말했는지,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앞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① 평서문으로 말했으므로 현재 상태를 알리는 직접 발화로 판정한다.

② 더운 상태를 표현한 것은 알 수 있지만 특정 행동의 요청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③ 덥다는 말은 환기와 관련되므로 창문을 열라는 간접 발화로 판정한다.

④ 기온을 말했으므로 체육관의 온도를 묻는 질문으로 판정한다.

⑤ 혼자 한 말이므로 듣는 이를 향한 요청일 가능성은 제외한다.

답 ____

014 서답형 **㉠의 문장 형식·주된 발화 의도를 쓰고,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중 어느 것인지 쓰자.**

두 손에 짐을 든 사람이 문손잡이 옆에 있는 동행에게 ㉠“문 좀 열어 줄래?”라고 말했다.

문장 형식	
주된 발화 의도	
직접 발화 / 간접 발화	

015 선택형 **발화 의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장 뜻·참여자의 상황·앞뒤 말을 연결해 의도를 판단한다.

② 의문문이면 정보를 묻는 의도로, 평서문이면 알리는 의도로 분류한다.

③ 청자가 행동으로 반응했으면 원래 문장도 명령문으로 분류한다.

④ 높임 표현을 사용했으면 화자의 목적을 부탁으로 분류한다.

⑤ 같은 표현을 이전에 들었을 때의 상황을 현재 상황에 적용해 의도를 정한다.

답 ____

B1 ‘그것’은 물건일까, 앞의 이야기일까?

개념ID: 문법08-04

짧은 답 가리키는 표현의 모양보다, 현장의 대상과 앞뒤 내용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다.

정의

지시 표현은 대상·장소·시간 등을 가리키고, 대용 표현은 말이나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대신한다.

표현	기능	가리키는 범위
[상자]를 가리키며 ‘그것을 옮겨 줘.’	현장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	그것 → [현장의 상자]
‘[연습 장소가 바뀌었어.] 그것부터 알려야 해.’	앞 내용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	그것 ← [연습 장소가 바뀌었다는 사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다음 모임은 온라인으로 하자.]’	뒤 내용을 가리켜 예고함	이렇습니다 → [뒤의 제안 전체]

Q 가리키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받는 범위	예문과 표시
낱말	‘[새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그곳은 우리 집 바로 옆이다.’ → 그곳 ← [새 도서관]
사실 전체	‘[새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그 소식에 동네 아이들이 기뻐했다.’ → 그 소식 ←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는 사실]

Q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은 겹칠까?

‘그것’은 지시 표현이면서 앞 내용을 대신하는 대용 기능을 할 수 있다. 모양만으로 서로 겹치지 않는 종류라고 나누지 않는다.

Q 자주 쓰이는 표현은 무엇일까?

종류	표현
지시 표현	이·그·저, 이것·그것·저것, 여기·거기·저기, 이때·그때
대용 표현	그것·그 사실·그렇게·그러하다·이렇다
접속 표현	그리고·그러나·하지만·그래서·따라서·왜냐하면·예를 들어·즉

같은 표현도 실제 기능은 앞뒤 내용과 상황에서 확인한다.

비유

지시 표현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대용 표현은 앞에서 한 내용을 다시 부르는 별명과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별명은 보통 사람을 부르지만 대용 표현은 사건 전체를 대신할 수도 있고, 뒤의 내용을 예고할 수도 있다.

오해 ×	바른 판단 ✓
'그것'은 언제나 바로 앞의 명사 한 개만 대신한다.	낱말·사건·제안 전체 등 실제로 이어지는 범위를 확인한다.

‘그것’이 가리키는 범위

① 현장의 대상



“그것을 옮겨 줘.”

그것 → [현장의 상자]

② 앞에서 말한 사실 전체

[연습 장소가 바뀌었어.]

“그것부터 알려야 해.” ↑

그것 ← [연습 장소가 바뀌었다는 사실]

아래쪽 연결은 낱말 ‘장소’가 아니라 앞 문장 전체를 받는다.

---

016 서답형 **두 자료에서 ‘그것’이 가리키거나 대신하는 내용을 각각 쓰자.**

(가) 작업자가 바닥에 놓인 노란 바구니를 손으로 가리키며 “그것을 선반에 올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 “강풍으로 배편이 중단되었어.” “그것을 먼저 여행객에게 알려야겠네.”

가	
나	

017 선택형 **㉠이 대신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서는 발표 순서를 바꾸자고 제안했어." "나는 ㉠그 제안에 찬성해."

① 제안을 한 민서라는 사람
② 현재 정해져 있는 발표 순서 자체
③ 민서가 발표를 맡겠다는 제안
④ 발표를 취소하자는 제안
⑤ 발표 순서를 바꾸자는 제안 전체

답 ☐

018 서답형 **'그것'의 대상을 '색연필'로 분명히 하려고 한다. 두 번째 문장만 고쳐 쓰자.**

지우 옆에 공책과 색연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상자에 넣었다.

고친 두 번째 문장	

019 선택형 **두 표현의 기능과 범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앞선 설명 없이 [컵]을 가리키며 "그것 좀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 "[접수가 다음 주로 연기되었어.] 그 사실을 알려야 해."

① 가는 현장 물건을 가리키고, 나는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대신한다.
② 가와 나 모두 앞 문장의 내용을 대신한다.
③ 가와 나 모두 현장에서 가리킨 물건을 뜻한다.
④ 가는 현장 물건을 가리키고, 나는 '접수'라는 낱말만 대신한다.
⑤ 가는 뒤에 나올 말을 예고하고, 나는 앞뒤 문장의 대조 관계를 나타낸다.

답 ☐

020 서답형 **㉠이 예고하는 내용을 쓰고, 그 내용이 ㉠의 앞과 뒤 중 어디에 있는지 쓰자.**

진행자가 말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다음 행사에서는 참가 신청을 미리 받읍시다.”

예고하는 내용	
내용의 위치	

B2 빼거나 이어도 뜻이 분명할까?

개념ID: 문법08-04

짧은 답 **생략한 내용을 복원할 수 있고, 접속 표현이 실제 의미 관계에 맞아야 한다.**

정의

생략은 맥락으로 복원할 수 있는 성분을 줄이는 것이고, 접속은 발화나 문장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수단	기능·관계 기호	예
생략	맥락으로 알 수 있는 성분을 줄임	'누가 표를 만들었니?' '소라가 (표를 만들었어).'
접속 표현	추가 (+)	책상을 닦았다. + 그리고 의자도 정리했다.
접속 표현	대조 (↔)	길은 짧았다. ↔ 그러나 경사는 가팔랐다.
접속 표현	원인 → 결과 (⇒)	수도관이 얼었다. ⇒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괄호 안은 생략된 말을 복원한 부분이다. +·↔·⇒는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표시이다.

Q 줄이면 좋은 표현일까?

'누가 무엇을 옮겼니?'에 '내가.'라고만 답하면 사람은 알 수 있어도 옮긴 물건은 알 수 없다. 맥락으로 복원할 수 없는 핵심 정보는 남겨야 한다.

Q 접속 표현이 관계를 만들까?

먼저 두 문장의 뜻을 비교한다. '그래서'를 넣는다고 관련 없는 두 사건에 원인·결과 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

Q 접속은 단어로만 나타날까?

연결 어미로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문장 사이의 접속 표현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비유

생략은 함께 아는 내용을 접어 두는 일, 접속은 펼친 내용 사이에 관계 표시를 붙이는 일과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접힌 내용을 아무도 복원할 수 없거나 표시가 실제 관계와 다르면 뜻이 흐려진다.

오해 ×	바른 판단 ✓
짧게 쓰고 접속어를 많이 넣으면 언제나 잘 연결된 담화이다.	생략한 내용을 복원할 수 있는지, 접속이 의미 관계에 맞는지 확인한다.

021 선택형 **나의 답에서 생략된 말을 뜻이 바뀌지 않게 복원한 것은?**

가: “너 어제 영화 봤어?”

나: “응, 동생이랑.”

① 응, 어제 동생이랑 영화 봤어.

② 응, 동생이 어제 영화 봤어.

③ 응, 내일 동생이랑 영화 볼 거야.

④ 응, 어제 동생이랑 영화만 봤어.

⑤ 응, 어제 동생이랑 영화를 골랐어.

답 ☐

022 서답형 **빈칸에 ‘그러나·그래서·그리고’ 중 가장 알맞은 말을 각각 넣자.**

(가) 전등의 전지가 다 닳았다. (　) 불이 켜지지 않았다.

(나) 상자는 작았다. (　) 무게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다) 책장을 닦았다. (　) 창틀도 닦았다.

가	
나	
다	

023 선택형 **다음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누가 그림을 그렸니?" "서윤이가."

① '서윤이가'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생략한 서술어를 복원한 것이다.

② '그래서'를 넣으면 빠진 행동이 원인·결과 관계로 복원된다.

③ '그림을 그렸어'를 복원하면 서윤이가 한 행동을 알 수 있다.

④ 답이 짧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용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⑤ 말하지 않은 행동은 앞말에 나와도 복원할 수 없는 정보로 본다.

답 ____

024 서답형 **대괄호로 표시한 접속 표현을 가장 알맞게 고치고, 앞뒤 문장의 관계를 쓰자.**

여러 번 연습했다. [그래서]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다.

고친 표현	
앞뒤 관계	

025 선택형 **다음 답변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담당자: "누가 어떤 장비를 가져올지 모두 알려 주세요."

응답자: "제가요."

두 사람은 장비 종류에 관해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

① 사람은 밝혔지만 장비는 맥락으로 복원할 수 없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② 사람과 장비가 모두 앞 질문에 나와 있으므로 둘 다 복원할 수 있다.

③ '제가'는 장비를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므로 장비 종류를 답한 셈이다.

④ 질문과 다른 주제를 말했으므로 응답자 정보도 질문과 관련이 없다.

⑤ 사람 이름 대신 '저'를 썼으므로 누가 가져올지도 알아낼 수 없다.

답 ____

B3 ‘그리고’만 붙이면 한 편의 글이 될까?

개념ID: 문법08-05 · 문법08-06

짧은 답 **주제가 일관되고, 부분을 잇는 표현과 의미 관계도 분명해야 한다.**

정의

통일성은 내용이 하나의 주제·목적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성질이고, 응집성은 지시·대용·접속 등의 표현으로 담화의 부분들이 연결되는 성질이다.

성질	확인할 질문	문제의 예
통일성	전체 주제·목적에 필요한 내용인가?	물병 보관 안내에 유행하는 모자 이야기가 끼어듦
응집성	부분을 잇는 표현과 그 대상·관계가 분명한가?	두 물건을 소개한 뒤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여 대상이 모호함

Q 두 성질은 다른 축일까?

	대상·관계의 연결이 분명함	대상·관계의 연결이 흐림
주제가 하나	운동장이 젖었다. 그래서 체육은 실내에서 한다.	병과 뚜껑을 씻는다. 그것은 그곳에 둔다.
주제에서 벗어남	물병 뚜껑을 닫는다. 그 뚜껑과 같은 색의 모자가 유행이다.	물병 뚜껑을 닫는다. 그것은 저쪽에서 인기다.

첫 행 왼쪽의 주제는 실내 체육 안내이고, 나머지 세 칸의 주제는 물병 보관 방법이다. 둘째 행 왼쪽은 ‘그 뚜껑’의 연결은 분명하지만 모자 유행은 글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Q ‘그리고’만 있으면 잘 이어질까?

‘수질을 조사했다. 그리고 내 모자는 빨간색이다.’는 ‘그리고’로 두 문장을 이었지만 두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으므로 통일성이 부족하다. 접속 표현이 있다고 통일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상태	보완 방향
관련 없는 내용이 끼어듦	삭제하거나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바꿈
대용 대상이 모호함	구체적인 대상을 밝힘
접속 관계가 어긋남	실제 관계에 맞는 접속 표현으로 고침
필요한 내용이 빠짐	글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보충함

비유

목걸이에서 같은 주제로 고른 구슬은 통일성, 구슬을 잇는 실은 응집성과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글에서는 접속 표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용이 이어질 수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예도 한 주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

오해 ×	바른 판단 ✓
접속어가 보이면 통일성과 응집성이 모두 완벽하다.	내용의 일관성과 표현의 연결을 따로 점검하되 실제 의미 관계도 함께 본다.

통일성과 응집성: 구슬과 실

① 주제가 이어지고 연결도 분명함



운동장이 젖었다. 그래서 체육은 실내에서 한다.

②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받는 대상은 분명함



물병 뚜껑을 닫는다. 그 뚜껑과 같은 색의 모자가 유행이다.

③ 주제는 같지만 가리키는 대상·장소가 흐림



병과 뚜껑을 씻는다. 그것은 그곳에 둔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서로 다른 예도 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접속 표현이 없어도 내용은 이어질 수 있다.

통일성은 주제, 응집성은 부분의 연결을 중심으로 본다.

026 서답형 **글의 목적에 어긋나는 문장 번호를 쓰고, 먼저 점검할 성질을 '통일성·응집성' 중에서 골라 쓰자.**

주제: 비 오는 날 우산을 보관하는 방법

[1] 사용한 우산은 물기를 턴다.

[2] 펼쳐서 충분히 말린다.

[3] 달의 표면에는 여러 충돌구가 있다.

[4] 마른 우산은 접어서 보관한다.

문장 번호	
점검할 성질	

027 선택형 **㉠을 고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모종삽과 물뿌리개를 준비한다. 씨앗을 심은 뒤 ㉠그것으로 물을 준다.

① '그것'을 '모종삽'으로 바꾸어 물 주기 도구를 밝힌다.

② '그것'을 '그 장소'로 바꾸어 씨앗을 심을 곳을 밝힌다.

③ '그것' 앞에 '그러나'를 넣어 도구 사이의 대조를 나타낸다.

④ '그것'을 '물뿌리개'로 바꾸어 사용하는 도구를 밝힌다.

⑤ 모종삽과 물뿌리개를 소개한 문장을 빼서 주제를 하나로 만든다.

답 ☐

028 서답형 **아래 두 조건에 맞게 글 전체를 고쳐 쓰자.**

조건 1: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을 뺄 것. **조건 2: 잘못 쓴 접속 표현을 고칠 것.**

주제: 비로 젖은 운동장 사용 안내

밤새 비가 내려 운동장이 젖었다. 그러나 오늘 체육 활동은 실내에서 한다. 내 동생은 피자를 좋아한다.

고친 글	

029 선택형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자. 그리고 오늘 하늘의 별은 멀리 있다." 두 번째 문장을 분리배출과 연결해 주는 추가 설명은 없다.

① '그리고'로 연결되었으므로 별 이야기도 분리배출의 근거가 된다.

② 두 문장 모두 정보를 전하므로 하나의 주제를 유지한다.

③ '그리고'를 '그래서'로 바꾸면 분리배출과 별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④ 연결하는 말은 있으나 두 내용이 분리배출이라는 주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⑤ 두 번째 문장에서 '별'을 '그것'으로 바꾸면 주제 이탈이 해결된다.

답 ____

030 서답형 **두 자료에서 먼저 점검할 성질을 '통일성·응집성' 중 골라 쓰고, 각각 한 가지 근거를 덧붙이자.**

(가) 빗물 저장 방법을 설명하는 글 한가운데, 저장 방법과 관계없는 인기 노래의 순위가 들어 있다.

(나) 붓과 물통을 준비하라는 설명 뒤에 "그것은 이쪽에 둔다."라고 했으나 무엇을 어디에 두라는지 알 수 없다.

가: 성질과 근거	
나: 성질과 근거	

한눈에 협력의 원리 — 무엇을 점검할까?

협력의 원리: 네 가지 점검



한 말에 여러 문제가 겹칠 수 있다. 나머지 항목도 확인한다.

문제가 가리킨 점과 가장 가까운 격률을 고른다.

확인 순서	문제가 있다면	격률
① 질문·주제와 관련 있나?	관련 없는 말을 함	관련성
② 필요한 만큼 말했나?	정보가 모자라거나 넘침	양
③ 사실이고 근거가 있나?	거짓이거나 근거가 부족함	질
④ 분명하고 간결하며 순서가 있나?	모호하거나 두서없음	태도(방법)

C1 많이 말하면 협력한 것일까?

개념ID: 문법08-07

짧은 답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 사실과 근거에 맞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

정의

협력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격률	핵심 기준	어긋난 말	고친 말
양	필요한 만큼	날짜·장소를 물었는데 '장소는 안내 데스크야.'	'금요일까지 안내 데스크로 내면 돼.'
질	사실과 근거	일정을 확인하지 않고 '내일 열어.'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 일정을 확인해 볼게.'
관련성	지금의 주제와 관계	위치를 물었는데 '나는 떡을 좋아해.'	'전시실은 2층에 있어.'
태도	분명하고 간결하며 질서 있게	'그것을 거기로 보내.'	'신청서를 1번 창구로 보내.'

태도의 격률은 방법의 격률이라고도 한다.

Q 양은 말의 길이일까?

필요한 정보량은 질문과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사용법을 요청받았다면 충분히 길게 설명해도 된다.

Q 질을 지키려면 정답을 알아야 할까?

모를 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힐 수 있다. 모르는 내용을 확실하다고 단정하는 말과 구별한다.

비유

대화는 길 안내 내비게이션과 비슷하다. 목적지와 관련된 안내는 관련성, 필요한 만큼의 안내는 양, 정확한 길 정보는 질, 분명한 안내는 태도에 해당한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내비게이션은 주로 한쪽이 안내하지만 대화에서는 참여자들이 말을 주고받는다.

오해 ×	바른 판단 ✓
양은 무조건 짧게 말하기이고, 질은 자신 있게 말하기이다.	양은 필요한 정보량, 질은 사실과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031 선택형 **답변에서 문제가 되는 점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격률은?**

"신청 마감 날짜와 제출 장소를 모두 알려 줘."

"제출 장소는 안내 데스크야."

답한 장소 정보는 정확하다.

① 질의 격률

② 관련성의 격률

③ 양의 격률

④ 태도의 격률

⑤ 네 격률 중 해당하는 것이 없다.

답 ☐

032 서답형 **어긴 격률을 쓰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답변을 고쳐 쓰자.**

"수영장이 내일 문을 열까?"

운영 일정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틀림없이 열어."라고 답했다.

격률	
고친 답변	

033 선택형 **양의 격률에 맞게 답하려 할 때 가장 적절한 판단은?**

(가) “설명회 시작 시각만 알려 줘.”

(나) “처음 참가하니 접수부터 입장까지 절차를 자세히 알려 줘.”

① 가와 나 모두 같은 길이로 답해야 필요한 정보량이 같아진다.

② 가는 시각만으로 충분하고, 나는 절차를 설명해야 충분하다.

③ 나도 시각 하나만 답하면 간결하므로 양의 격률을 지킨다.

④ 가에는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더해야 양의 격률을 지킨다.

⑤ 두 답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정보량의 적절성도 결정된다.

답 ____

034 서답형 **답변의 내용은 사실이다. 양의 격률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만 남겨 답변을 고쳐 쓰자.**

질문: “결승전은 몇 시에 시작하니? 시각만 알려 줘.”

답변: “오후 4시에 시작해. 나는 어제 7시에 일어났고, 점심에는 국수를 먹었어.”

고친 답변	

035 선택형 **질의 격률을 가장 잘 지킨 답변은?**

친구가 “이번 전시회 입장료가 얼마인지 알아?”라고 물었다. 답하는 사람은 가격을 확인한 적이 없다.

① “비슷한 전시가 무료였으니 이번에도 무료야.”

②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 공식 안내를 확인해 보자.”

③ “건물이 공공시설이니까 입장료는 없을 거야. 무료로 적어.”

④ “친구가 전시를 봤다고 했어. 입장료는 오천 원이야.”

⑤ “날짜와 장소는 알아. 그러니 가격도 만 원이라고 답할게.”

답 ____

C2 관련 있는 말이면 충분히 분명할까?

개념ID: 문법08-07

짧은 답 **주제와 관련 있는지와 표현이 분명한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본다.**

정의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 주제와의 관계를, 태도의 격률은 표현의 명료함·간결함·질서를 중심으로 본다.

비교	관련성 문제	태도 문제
질문	'전시실은 어디인가요?'	'신청서를 어떻게 내나요?'
답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입니다.'	'그것을 거기로 보낸 뒤 그걸 하면 돼요.'
핵심 문제	물은 위치와 관계없는 내용	제출물·장소·순서가 불분명함
보완	물은 위치에 답함	무엇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내는지 밝힘

Q 태도는 예절을 뜻할까?

태도(방법)의 격률은 표현의 분명함·간결함·질서를 살핀다. 높임말이나 친절한 표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Q 여러 격률이 겹칠까?

주제와 관계없고 표현도 모호한 말에는 여러 문제가 겹칠 수 있다. 문제에서 가리킨 점에 가장 가까운 격률을 고른다.

비유

내비게이션에 비유하면, 관련성은 '목적지가 맞는가', 태도는 '안내 문장이 분명한가'를 보는 것이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실제 대화에서는 목적지도 틀리고 안내도 흐린 말처럼 두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오해 ×	바른 판단 ✓
태도의 격률은 언제나 높임말과 공손한 표정만 평가한다.	협력의 원리에서 태도는 표현의 명료함·간결함·질서를 중심으로 본다.

036 서답형 **답변이 어긴 격률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쓰자.**

"반납함은 어느 층에 있나요?"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이야기가 반납함 위치와 관련된다는 특별한 맥락은 없다.

격률	
근거	

037 선택형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청서 제출 방법을 묻자 담당자가 신청서와 신청함을 모두 "그거"라고 부르며 "그걸 그거에 넣으면 돼요."라고 답했다. 듣는 이는 어느 것이 제출물이고 어느 것이 제출 장소인지 알 수 없었다.

① 제출 방법이 아닌 다른 주제를 다루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이 중심 문제이다.

② 신청서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므로 질의 격률이 중심 문제이다.

③ 상대에게 일을 적게 요구했으므로 관용의 격률을 적용한 말이다.

④ 같은 낱말을 반복한 것은 자세한 정보를 많이 준 것이므로 양의 격률을 충족한다.

⑤ 제출 방법을 설명하지만 두 대상을 구별하기 어려워 태도의 격률을 점검해야 한다.

답 ☐

038 서답형 **아래의 실제 절차가 드러나도록 담당자의 말을 두 문장으로 고쳐 쓰자.**

모호한 설명: "그걸 저쪽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으세요."

실제 절차: ① 작성한 신청서를 1번 창구에 제출한다. ② 같은 창구에서 접수증을 받는다.

고친 설명: 두 문장	

039 선택형 **협력의 원리에서 태도의 격률을 판단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것은?**

① 말한 내용이 확인된 사실이며 근거가 있는가?

② 대상이 분명하고 설명이 간결하며 순서가 질서 있는가?

③ 질문에서 요구한 만큼의 정보를 주었는가?

④ 상대가 이야기하는 현재 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⑤ 상대의 부탁 부담을 줄이고 선택할 여지를 주었는가?

답 ____

040 서답형 **각 답변이 어긴 격률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쓰자.**

질문: “체험실까지 어떻게 가나요?”

(가) “오늘 제 운동화는 새것이에요.”

(나) “저기를 지나 그쪽으로 가면 그게 있어요.”

가의 격률	
가의 근거	
나의 격률	
나의 근거	

C3 바로 답하지 않으면 소통에 실패한 걸까?

개념ID: 문법08-03 · 문법08-07

짧은 답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는 뜻이 통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을 근거 없이 확정하지는 않는다.**

정의

화자는 때로 문자 그대로의 답을 하지 않으면서 맥락을 통해 다른 뜻을 넌지시 드러낸다.

대화	가능한 뜻	지나친 판단
‘오늘 같이 산책할래?’ ‘지금 마감할 일이 남아 있어.’	당장은 함께 산책하기 어렵다는 뜻일 수 있음	상대를 싫어한다고 단정함
‘새 숙소는 어땠어?’ ‘위치는 편리했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아끼는 뜻일 수 있음	위생·가격 등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확정함

Q 직접 답이 없으면 엉뚱한 말일까?

남은 일은 산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간다·안 간다’가 없어도 사정을 말해 뜻을 넌지시 드러낼 수 있다.

Q 간접 표현은 잘 통할까?

필요한 맥락을 공유하지 않으면 뜻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이 필요하면 ‘오늘은 어렵다는 뜻이니?’처럼 확인한다.

Q 간접적인 뜻을 전하려고 사실을 꾸며도 될까?

간접적인 표현과 거짓 사실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 전달하는 사실은 근거에 맞아야 한다.

비유

친구가 ‘우산을 잠깐 빌려줄래?’라는 말에 ‘나도 지금 비를 맞으며 정류장까지 가야 해.’라고 답했다면, 남은 퍼즐 조각을 끼우듯 빌려주기 어렵다는 뜻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퍼즐의 완성 그림과 달리 간접적인 뜻은 상대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오해 ×	바른 판단 ✓
질문에 ‘예·아니요’로 답하지 않으면 언제나 엉뚱한 말이다.	질문과 답변의 관계를 맥락에서 찾고, 가능한 의도와 확정된 사실을 구별한다.

041 선택형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석은?**

가: “지금 잠깐 같이 공놀이할래?”

나: “10분 뒤에 제출해야 할 과제를 아직 끝내지 못했어.”

나는 과제를 마무리하며 계속 책상에 앉아 있다.

① 참여 의사를 직접 말하지 않았으므로 질문과 관련 없는 답이다.

② ‘참여할 수 없다’는 거절을 문장에 직접 밝혔으므로 직접 발화이다.

③ 과제가 있다는 답은 함께 과제를 하자는 제안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남은 일을 말해 지금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⑤ 과제 제출 시각을 말했으므로 제출 직후 참여하겠다는 약속이다.

답 ____

042 서답형 **ⓐ~ⓒ를 ‘말에 드러난 사실 / 짐작할 수 있는 뜻 / 지나친 판단’으로 나누어 쓰자.**

가: “새로 산 의자는 전체적으로 어때?”

나: “색깔은 마음에 들어.”

의자의 다른 특징에 대한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 나는 의자 색깔을 좋게 평가했다.

ⓑ 나는 의자의 다른 점에는 덜 만족했을 수 있다.

ⓒ 의자 다리가 부러져 있다.

말에 드러난 사실	
짐작할 수 있는 뜻	
지나친 판단	

043 선택형 **다음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지금 모임에 같이 갈래?”

나: “곧 병원 예약 시각이라 나가야 해.”

① 나의 답은 모임 참여라는 주제에서 벗어났으므로 관련성이 없다.

② 나의 일정이 지금의 참여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간접적인 거절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나의 평서문이 병원 일정을 알리므로 거절의 뜻은 해석할 수 없다.

④ 나의 답은 가에게 병원에 함께 가자고 요구한 발화이다.

⑤ 가는 병원 일정이 끝나면 나가 모임에 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해도 된다.

답 ____

044 서답형 **상대의 뜻을 단정하지 않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문장으로 쓰자.**

가: “내일 오전에 같이 벽화를 그릴 수 있어?”

나: “오전에 가족 일정이 잡혀 있어.”

가에게는 참석 인원을 오늘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확인 질문	

045 선택형 **자료를 해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이 방에서 합주해도 될까?”

나: “옆방에서 지금 조용히 녹음하고 있어.”

두 방 사이에는 소리가 잘 전달된다.

① 나는 합주와 관계없는 정보를 말했으므로 두 발화의 관계를 찾을 수 없다.

② 나는 옆방 사람이 모든 음악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③ 나는 합주 소리가 녹음을 방해할 수 있어 지금 합주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할 수 있다.

④ 나는 녹음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⑤ 나는 어떤 장소에서도 앞으로 합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답 ____

한눈에 공손성의 원리 — 누구의 무엇을 조정할까?

격률	줄일 것(최소화)	늘릴 것(최대화)
요령	상대의 부담	상대의 이익
관용	나의 이익(혜택)	나의 부담
찬동	상대에 대한 비난	상대에 대한 칭찬
겸양	나에 대한 칭찬	나를 낮추는 표현
동의	상대와 나의 의견 차이	상대와 나의 의견 일치

말의 초점	부담·이익	칭찬·비난(평가)
상대	요령: 부담 ↓, 이익 ↑	찬동: 비난 ↓, 칭찬 ↑
나	관용: 이익 ↓, 부담 ↑	겸양: 칭찬 ↓, 낮춤 ↑
서로의 의견	동의: 의견 차이 ↓, 일치 ↑ (두 칸 공통)	

공손성: 누구의 무엇을 조정할까?

	부담·이익	칭찬·비난
상대	**요령** 상대의 부담 ↓ 상대의 이익 ↑ 바쁘면 나중에 확인해도 돼요.	**찬동** 상대 비난 ↓ 상대 칭찬 ↑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셨네요.
나	**관용** 나의 이익 ↓ 나의 부담 ↑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겸양** 나에 대한 칭찬 ↓ 나를 낮추는 표현 ↑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냈어요.

서로의 의견 → 동의

의견 차이 ↓ / 의견 일치 ↑

그 점에는 동의해요. 다만…

이 표는 표현을 조정하는 방향을 보여 준다. 사실을 바꾸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라는 뜻은 아니다.

D1 부담을 줄일까, 내가 맡을까?

개념ID: 문법08-08

짧은 답 **요령은 상대의 부담·이익에, 관용은 자신이 맡는 부담·이익에 초점을 둔다.**

정의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의 부담과 이익 등을 고려하여 배려하며 말하는 원리이다.

말의 초점	줄일 것	늘릴 것
요령: 상대	상대 부담	상대 이익
관용: 나	나의 이익	나의 부담

유형	예	중심
상대에게 요구하는 조건 조정	'지금 바쁘면 나중에 확인해도 돼요.'	요령
자신의 일을 더 맡음	'정리 작업은 제가 맡겠습니다.'	관용
문제의 원인을 자신 쪽으로 돌려 말함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용

Q 결과가 같으면 구별할 수 없을까?

내가 정리하면 상대의 부담도 줄 수 있다. 두 효과가 겹치더라도 '제가 맡겠습니다.'는 자신이 부담을 맡는 데 초점이 있다.

Q 원인을 나에게 돌리면 사실도 바꿔야 할까?

잘 듣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말하며 다시 설명을 부탁할 수 있다. 자신에게 없는 잘못을 사실처럼 꾸며 내라는 뜻은 아니다.

Q 말만 부드러우면 될까?

'편할 때'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지금 끝내야 한다면 조건이 어긋난다. 필요한 기한과 이유도 함께 밝혀야 한다.

비유

함께 옮길 짐을 나누는 장면과 비슷하다. 상대 쪽 짐을 덜 요구하는 데 초점을 두면 요령, 내 쪽에서 짐을 맡겠다는 데 초점을 두면 관용을 이해하기 쉽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실제로는 두 효과가 함께 생길 수 있어 표현의 초점을 보아야 한다.

오해 ×	바른 판단 ✓
상대가 편해지면 모든 표현을 요령으로만 분류한다.	상대의 부담을 조정하는 말인지, 자신이 부담을 맡는 말인지 중심을 본다.

046 서답형 **각 발화에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 격률을 '요령·관용' 중 골라 쓰고, 표현상의 근거를 덧붙이자.**

(가) "시간이 부족하면 표 전체가 아니라 제목만 확인해 주셔도 돼요."

(나) "남은 표 정리는 제가 맡을게요."

가: 격률과 근거	
나: 격률과 근거	

047 선택형 **관용의 격률에 가장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표현은?**

① "바쁘시면 답은 다음 주에 주셔도 됩니다."

② "설명에서 예시를 잘 고르셨네요."

③ "제 발표에는 아직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④ "마지막 확인 작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⑤ "안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답 ☐

048 서답형 **상대의 부담을 줄이는 요령의 격률이 드러나도록 요청을 고쳐 쓰자. 자료 검토는 다음 주까지 가능하며, 오탈자만 확인해도 된다.**

원래 말: "지금 이 자료를 전부 자세히 검토해 주세요."

고친 요청	

049 선택형 **나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남은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

나: “남은 정리는 내가 할게.”

① 가의 부담이 줄었으므로 나의 말에는 요령만 적용할 수 있다.

② 나가 자신의 능력을 칭찬하는 말이므로 겸양에 초점을 둔다.

③ 가의 의견에 찬성했으므로 동의가 가장 직접적인 초점이다.

④ 나가 가의 정리 솜씨를 평가하므로 찬동에 초점을 둔다.

⑤ 나가 일을 맡으면 가의 부담도 줄지만, 표현은 자신의 부담을 맡는 관용에 초점을 둔다.

답 ____

050 서답형 **관용의 격률이 드러나도록 설명을 다시 부탁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쓰자.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 상황을 밝혀야 한다.**

설명이 빠르게 이어져 화자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상대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하려 한다.

발화	

D2 칭찬·겸손·동의는 같은 배려일까?

개념ID: 문법08-08

짧은 답 **상대를 평가하는지, 자신을 평가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지 구별한다.**

정의

찬동은 상대에 대한 긍정 평가, 겸양은 자기 칭찬을 낮추는 표현, 동의는 의견의 공통점을 확인하며 차이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말의 초점	줄일 것	늘릴 것
찬동: 상대 평가	상대 비난	상대 칭찬
겸양: 자기 평가	자기 칭찬	자신을 낮추는 표현
동의: 서로의 의견	의견 차이	의견 일치

예	초점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셨네요.’	상대의 장점 인정: 찬동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낼 수 있었어요.’	자기 칭찬을 줄임: 겸양
‘기록을 남기자는 데에는 동의해요. 방법은 더 논의하면 좋겠어요.’	공통점과 차이 조정: 동의

Q 찬동과 동의는 같을까?

찬동은 상대에 대한 칭찬·평가, 동의는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Q 배려하려면 사실을 바꿔야 할까?

근거 없는 칭찬이나 지나친 자기 비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에 맞는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할 점도 말할 수 있다.

Q 의견이 다르면 공손할 수 없을까?

공통점을 먼저 확인한 뒤 다른 부분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의견 일치를 늘린다고 자기 의견을 숨기는 것은 아니다.

비유

칭찬의 조명을 상대에게 비추면 찬동, 자신에게서 조금 거두면 겸양과 비슷하다. 동의는 두 의견의 원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는 일과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조명을 거둔다고 실제 내 기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견이 다른 부분도 남겨 말할 수 있다.

오해 ×	바른 판단 ✓
공손하려면 사실과 달라도 칭찬하고 모든 의견에 찬성해야 한다.	사실과 맥락에 맞게 장점을 인정하고, 필요한 차이도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말한다.

---

051 선택형 **찬동의 격률에 가장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표현은?**

① “복잡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네요.”

② “정리할 상자는 제가 옮기겠습니다.”

③ “답변은 시간이 되실 때 주셔도 됩니다.”

④ “제가 한 일은 작은 부분이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⑤ “마감일을 지키자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해요.”

답 ☐

---

052 서답형 **각 발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격률을 ‘찬동·겸양·동의’ 중 골라 쓰자.**

(가) “질문을 핵심별로 묶은 점이 참 좋네요.”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다)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해요. 다만 필요한 안전 장비는 갖추면 좋겠어요.”

가	
나	
다	

053 선택형 **동의의 격률을 고려하면서 자기 의견도 분명히 밝힌 답변은?**

상대는 “행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든 체험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화자는 시간을 줄일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핵심 체험 하나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시간을 줄이자는 뜻을 존중해서 저도 체험을 모두 없애는 데 동의해요.”

② “제 생각은 부족하니 체험을 없앨지는 상대 의견대로 정할게요.”

③ “행사 시간을 줄이려는 생각이 훌륭하네요. 제 의견은 말하지 않을게요.”

④ “핵심 체험은 남겨야 하니 행사 시간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⑤ “시간을 줄이자는 데에는 동의해요. 다만 핵심 체험 하나는 남기면 좋겠어요.”

답 ____

054 서답형 **자료의 사실을 유지하면서 겸양의 격률이 드러나도록 답변을 고쳐 쓰자.**

상대: “이번 전시 준비를 잘했네요.”

원래 답변: “제가 다 잘해서 성공한 거예요.”

실제 상황: 화자가 계획을 세웠고, 동료들이 전시물을 제작하고 설치했다.

고친 답변	

055 선택형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① 동의의 격률에 맞추려면 차이가 있는 의견은 답에서 빼는 편이 적절하다.

② 상대의 장점을 사실에 맞게 인정하면서 필요한 보완점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③ 겸양의 격률에 맞추려면 실제로 맡은 역할도 다른 사람이 했다고 말한다.

④ 찬동의 격률은 상대의 의견에 찬성하는 정도로 구별한다.

⑤ 관용의 격률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확인 기한을 늦추는 데 초점을 둔다.

답 ____

D3 관계를 배려하면 언제나 같은 말을 써야 할까?

개념ID: 문법08-09 · 문법08-10

짧은 답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되, 공동체와 관계·상황에 맞는 표현인지 살핀다.**

정의

체면 유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고려하는 것이고, 담화 관습은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말하기·글쓰기의 방식이다.

구별	마음·초점	예
체면 유지: 존중	인정받고 싶은 마음(적극적 체면)	'설명을 준비한 수고가 느껴져요.'
체면 유지: 부담과 선택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소극적 체면)	'번거롭겠지만, 가능할 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화 관습	공동체가 오래 공유해 온 말하기·글쓰기 방식	편지 첫머리에서 안부를 묻거나 감사 인사에 익숙한 방식으로 답함

Q 체면을 배려하면 지적할 수 없을까?

'수고해서 만든 표인 것은 알아요. 이 합계는 다시 확인하면 좋겠어요.'처럼 기여를 인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Q 관습이면 어디서나 같을까?

같은 공동체에서도 친구 사이의 인사와 공식 편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특정 인사말의 기능도 실제 관계·상황에서 확인한다.

Q 익숙한 표현만 쓰면 될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편할 때 하세요.'라고 하면 혼란을 준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필요한 조건은 분명히 밝힌다.

비유

담화 관습은 함께 익힌 인사 방식, 체면 유지는 그 방식을 현재 상대에게 맞게 쓰는 배려와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관습은 모든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규칙이 아니며, 익숙한 말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불편을 줄 수 있다.

오해 ×	바른 판단 ✓
체면을 배려하면 오류를 지적할 수 없고, 관습적인 말은 어디서나 그대로 써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는 분명히 말하되 사람을 존중하고, 관습은 현재 관계와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056 서답형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표의 합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말을 고쳐 쓰자.**

원래 말: “이런 것도 못 하다니 넌 정말 엉망이야.”

상황: 상대가 오랫동안 자료를 정리했지만 마지막 표의 합계 한 곳에 오류가 있다. 다른 부분까지 잘못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고친 말	

057 선택형 **담화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두 사람이 이번 대화에서 처음 약속한 손짓은 오랫동안 공유한 담화 관습이다.

② ‘식사하셨어요?’는 관습적인 인사이므로 주문 상황에서도 식사 여부를 묻지 않는다.

③ 친구 사이에서 익숙한 부탁 방식은 공식 공지에도 같은 효과를 낸다.

④ 공동체가 공유해 온 방식도 관계·매체·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쓸 수 있다.

⑤ 체면 유지는 공동체의 인사말 목록이고 담화 관습은 개인의 인정 욕구이다.

답 ____

058 서답형 **부탁의 부담을 인정하면서 실제 기한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두 문장으로 고쳐 쓰자.**

원래 말: “아무 때나 편할 때 확인해 주세요.”

실제 상황: 인쇄 일정 때문에 오늘 오후 5시까지 제목의 오탈자 확인이 필요하다. 시간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다.

고친 부탁	

059 선택형 **상대의 체면을 고려한 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안서를 준비한 노력이 잘 드러나네요. 다만 예산 합계는 함께 다시 확인하면 좋겠어요."

① 상대의 노력을 칭찬했으므로 예산 합계가 정확하다고 인정한 말이다.

② 함께 확인하자고 했으므로 화자가 검토 작업을 혼자 맡겠다는 뜻이다.

③ 상대 의견에 찬성하는 문장만 있으므로 동의의 격률만으로 설명한다.

④ 예산의 문제를 언급했으므로 상대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⑤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점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존중과 내용 확인을 함께 했다.

답 ____

060 서답형 **두 상황에서 '식사하셨어요?'가 하는 주된 기능을 각각 쓰고, 기능이 달라지는 까닭을 쓰자.**

공통 표현: "식사하셨어요?"

(가) 두 이웃이 길에서 지나치며 짧게 안부를 주고받는다. 화자는 식사 여부를 조사하려는 목적이 없다.

(나) 식사 주문을 맡은 사람이 아직 주문하지 않은 인원을 확인하려고 묻는다.

가의 기능	
나의 기능	
까닭	

다시 비교하기

헷갈리는 짝	구별 기준
문장 / 발화	언어 단위 /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한 말
문장 형식 / 발화 의도	문법적 형식 / 그 말로 이루려는 목적
언어적 맥락 / 상황 맥락	앞뒤 말과 글 / 현장의 참여자와 관계·때·장소·행동 등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구체적인 참여자·관계·때·장소 / 공동체의 가치·관습·문화·역사
직접 발화 / 간접 발화	문장 유형과 의도가 일치 / 문장 유형과 의도가 다름
현장 지시 / 내용 대용	현장의 대상을 가리킴 / 담화의 말이나 내용을 대신함
통일성 / 응집성	내용의 주제 일관성 / 표현을 통한 부분들의 연결
양 / 질	필요한 정보량 / 사실과 근거
관련성 / 태도	지금 주제와의 관계 / 표현의 명료함·간결함·질서
요령 / 관용	상대의 부담·이익 / 자신이 맡는 부담·이익
찬동 / 겸양 / 동의	상대 평가 / 자기 평가 / 의견 조정
체면 유지 / 담화 관습	상대의 존중과 부담을 고려 / 공동체가 공유하는 언어 사용 방식

다음 단원으로: 담화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표현뿐 아니라 표기도 살펴야 한다. 다음은 문법09 어문 규범이다.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서답형의 모범 답은 한 가지 예이다. 문제의 조건을 지키면서 뜻이 같은 자연스러운 답도 인정한다. 상세 인정 범위는 뒤의 문항별 정답과 해설에 제시한다.

001	④
002	화자(필자): 도서관 운영자 / 청자(독자): 도서관 이용자 / 담화의 목적: 실내 점검 때문에 오늘 개관 시간이 오후 2시임을 알림
003	③
004	완전한 문장: 밥을 조금만 더 주세요. / 판단 근거: 배식 담당자가 밥을 더 줄지 물었고 학생이 식판을 내밀며 답했다.
005	③
006	가리키는 때: 금요일 / 맥락의 종류: 언어적 맥락
007	③
008	혼동할 표현: 내일, 여기 / 고친 공지문: 10월 14일 오후 3시, 동쪽 건물 1층 강당에서 안전교육을 합니다.
009	⑤
010	사회·문화적 맥락 / 우리 사회에서 웃어른께는 높임 표현을 쓰는 언어 관습에 따라 고쳐 주었다.
011	①
012	가: 불이 켜져 있다는 상태를 알려 줌. / 나: 불을 꺼 달라고 요청함.
013	②
014	의문문 /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 / 간접 발화
015	①
016	가: 바닥에 놓인 노란 바구니 / 나: 강풍으로 배편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017	⑤
018	색연필을 상자에 넣었다.
019	①
020	예고하는 내용: 다음 행사에서 참가 신청을 미리 받자는 제안 / 내용의 위치: ㉠의 뒤
021	①
022	가: 그래서 / 나: 그러나 / 다: 그리고
023	③

024	고친 표현: 그러나 / 앞뒤 관계: 여러 번 연습했다는 앞 내용과 달리 어려운 부분이 남았다는 대조 관계
025	①
026	문장 번호: [3] / 점검할 성질: 통일성
027	④
028	밤새 비가 내려 운동장이 젖었다. 그래서 오늘 체육 활동은 실내에서 한다.
029	④
030	가: 통일성 — 노래 순위는 빗물 저장이라는 주제와 관계없다. / 나: 응집성 — ‘그것’의 대상과 ‘이쪽’의 장소가 불분명하다.
031	③
032	질의 격률 / “내일 운영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 운영 일정을 확인해 볼게.”
033	②
034	오후 4시에 시작해.
035	②
036	관련성의 격률 / 반납함 위치를 묻는 질문에 관계없는 영화 취향을 답했다.
037	⑤
038	먼저 작성한 신청서를 1번 창구에 제출하세요. 그다음 같은 창구에서 접수증을 받으세요.
039	②
040	가: 관련성 — 물은 길과 관계없는 운동화 이야기를 했다. / 나: 태도 — ‘저기·그쪽·그게’가 가리키는 장소와 방향이 모호하다.
041	④
042	말에 드러난 사실: ⓐ / 짐작할 수 있는 뜻: ⓑ / 지나친 판단: ⓒ
043	②
044	그러면 내일 오전 벽화 그리기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이니?
045	③
046	가: 요령 — 상대에게 요구하는 확인 범위를 줄였다. / 나: 관용 — 화자가 남은 정리 일을 맡겠다고 했다.
047	④
048	다음 주까지 가능하실 때 자료의 오탈자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049	⑤
050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51	①

052	가: 찬동 / 나: 겸양 / 다: 동의
053	⑤
054	제가 계획을 세웠지만 동료들이 제작과 설치를 잘해 준 덕분에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055	②
056	자료를 정리하느라 수고했어. 마지막 표의 합계 한 곳은 다시 확인해 보면 좋겠어.
057	④
058	번거롭겠지만 인쇄 일정 때문에 오늘 오후 5시까지 제목의 오탈자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께 부탁할 수 있으니 알려 주세요.
059	⑤
060	가: 안부를 묻는 인사 / 나: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질문 / 까닭: 같은 표현도 인사 관습과 실제 대화 목적 등 맥락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정답과 해설

A1. 글이나 혼자 하는 말도 담화일까?

001 **정답 ④**

① X 질문에 대답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출발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② X 화자와 청자는 참여자의 역할이며 행동과 말 자체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니다.

③ X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상황 맥락의 단서이다.

④ O 심판·선수·장소·행동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된 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X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출발선과 선수들의 반응 같은 상황에서 파악한다.

과정 한 줄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 확인 → 선수들의 반응 확인 → 준비를 요구한 발화로 판단

핵심 한 줄 **발화는 길이가 아니라 실제 사용 상황으로 판단한다.**

002

모범 답 화자(필자): 도서관 운영자 / 청자(독자): 도서관 이용자 / 담화의 목적: 실내 점검 때문에 오늘 개관 시간이 오후 2시임을 알림

인정 기준·허용 답 필자인 운영자, 독자인 이용자, 개관 시간 알림의 세 요소가 드러나면 인정한다. 이용자를 방문객으로 표현해도 된다.

과정 한 줄 안내문을 붙인 주체 확인 → 읽을 사람 확인 → 새로 알려 주는 정보 확인

핵심 한 줄 **글로 된 안내문도 담화이다.**

---

003 **정답 ③**

① X 내용을 쓰는 사람은 필자이며 읽는 사람은 독자이다.

② X 목적과 청자는 다르다. 청자는 듣는 사람이고 목적은 알림·요청 등 이루려는 일이다.

③ O 담화는 대화 외에도 연설·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④ X 개관 시간은 전달 내용이며 게시 장소는 상황 맥락이다.

⑤ X '여기' 같은 표현은 읽는 장소에 따라 불분명해질 수 있어 상황도 살펴야 한다.

과정 한 줄 담화의 성립 기준 확인 → 대화에만 한정한 설명 제외 → 안내 방송의 의사소통 기능 확인

핵심 한 줄 **담화는 대화보다 넓은 개념이다.**

004

모범 답 완전한 문장: 밥을 조금만 더 주세요. / 판단 근거: 배식 담당자가 밥을 더 줄지 물었고 학생이 식판을 내밀며 답했다.

인정 기준·허용 답 밥·조금·추가로 달라는 요청을 포함하고, 앞선 질문 또는 식판을 내미는 행동을 근거로 들면 인정한다.

과정 한 줄 앞선 질문 확인 → 생략된 대상과 행동 복원 → 적은 양을 요청하는 뜻으로 해석

핵심 한 줄 **짧은 답의 뜻은 앞말과 행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

---

005 **정답 ③**

① X 문장 구조만 살피면 상황 속 의사소통 기능을 놓칠 수 있다.

② X 종결 어미의 일치가 담화 성립의 기준은 아니다.

③ O 담화는 내용이 맥락 속에서 참여자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 단위이다.

④ X 목적을 알려면 단어 뜻 외에 실제 상황과 앞뒤 내용도 필요하다.

⑤ X 대화뿐 아니라 한 사람이 청자에게 하는 연설이나 방송도 담화가 된다.

과정 한 줄 담화의 정의 확인 → 형식 하나로 제한한 기준 제외 → 전달 관계와 목적 확인

핵심 한 줄 **담화는 언어 표현과 사용 맥락을 함께 본다.**

A2. '그때'와 '여기'는 어디에서 뜻을 찾을까?

006

모범 답 가리키는 때: 금요일 / 맥락의 종류: 언어적 맥락

인정 기준·허용 답 금요일과 언어적 맥락을 모두 쓰면 인정한다. "앞말의 금요일을 통해 안다"처럼 종류를 풀어 써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앞선 발화의 시간 표현 확인 → '그날'과 연결 → 앞뒤 말에 근거한 언어적 맥락으로 판단

핵심 한 줄 **앞말에서 지시 대상의 단서를 찾으면 언어적 맥락을 활용한 것이다.**

---

007 **정답 ③**

① X 언어적 맥락은 앞뒤 말·글이며 손짓은 상황 단서이다.

② X 특정 참여자의 관계는 상황 맥락이며 이 문제의 위치를 직접 정하는 것은 손짓이다.

③ O 손짓이라는 현장의 행동이 위치를 직접 알려 준다.

④ X 분류는 맞지만 높임 관습은 '여기'의 구체적 위치를 알려 주지 않는다.

⑤ X 앞선 장소 설명은 없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과정 한 줄 '여기'가 장소 표현임을 확인 → 앞말에 장소 설명이 없음을 확인 → 손짓이 가리키는 위치 확인

핵심 한 줄 **현장을 가리키는 행동도 상황 맥락의 단서이다.**

008

모범 답 혼동할 표현: 내일, 여기 / 고친 공지문: 10월 14일 오후 3시, 동쪽 건물 1층 강당에서 안전교육을 합니다.

인정 기준·허용 답 '내일'과 '여기'를 찾고 날짜·시각·건물·층·강당을 정확히 포함하면 인정한다. 문장 순서와 자연스러운 종결 표현은 달라도 된다.

과정 한 줄 독자가 읽는 때와 장소가 다름을 확인 → 상대적 시간·장소 표현 찾기 → 고정된 정보로 바꾸기

핵심 한 줄 **현장을 공유하지 않는 독자에게는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다.**

---

009 **정답 ⑤**

① X 특정 참여자의 관계는 상황 맥락에 해당한다.

② X 공유된 관습은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별한다.

③ X 앞뒤 말과 공동체 가치관의 분류가 뒤바뀌었다.

④ X 채팅의 즉각적인 답도 앞뒤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⑤ O 앞말과 현장 행동을 각각 구별한 설명이다.

과정 한 줄 각 맥락의 단서 구별 → 맥락을 하나로 제한한 설명 제외 → 함께 작용할 가능성 확인

핵심 한 줄 **맥락의 분류는 해석 근거를 구별하는 도구이다.**

010

모범 답 사회·문화적 맥락 / 우리 사회에서 웃어른께는 높임 표현을 쓰는 언어 관습에 따라 고쳐 주었다.

인정 기준·허용 답 사회·문화적 맥락을 쓰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높임의 관습·문화가 근거에 드러나면 인정한다. 할머니와 친구라는 두 사람의 관계만 쓴 답은 상황 맥락의 근거이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말을 고쳐 준 장면 확인 → 웃어른께 쓰는 공동체의 높임 관습 파악 →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판단

핵심 한 줄 **특정 참여자의 관계와 공동체가 공유하는 높임 관습을 구별한다.**

A3. 같은 문장은 언제 다른 부탁이 될까?

011 정답 ①

① O 하차하려는 목적과 주인에게 하는 말이 간접 요청의 근거이다.
② X 위치를 조사하는 목적이 아니라 통로를 지나려는 상황이다.
③ X 원인 설명을 구하는 물음이 아니라 장애물을 치워 달라는 뜻이다.
④ X 함께 옮기자는 문장 형식이나 의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X 요청 의도는 있으나 제시된 문장은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다.

과정 한 줄 표면적 진술 확인 → 하차 목적과 가방 위치 연결 → 통로를 비워 달라는 요청 해석

핵심 한 줄 **간접 요청은 상황과 전달 대상을 근거로 판단한다.**

012

모범 답 가: 불이 켜져 있다는 상태를 알려 줌. / 나: 불을 꺼 달라고 요청함.

인정 기준·허용 답 가의 상태 알림과 나의 소등 요청을 구별하면 인정한다. 나를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같은 문장 뜻 확인 → 각 상황의 목적과 상대 위치 비교 → 알림과 요청 구별

핵심 한 줄 **나에서는 평서문으로 요청하므로 간접 발화이다.**

---

013 정답 ②

① X 평서문도 요청에 쓰일 수 있어 형식만으로 직접 발화를 확정할 수 없다.
② O 상황 단서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요청을 확정하기 어렵다.
③ X 창문과 청자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환기 요청을 확정할 수 없다.
④ X 기온 수치를 묻는 표현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X 누구를 향해 말했는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혼자 한 말이라고도 확정할 수 없다.

과정 한 줄 명시된 뜻 확인 → 빠진 상황 정보 확인 → 특정 의도의 단정 보류

핵심 한 줄 **근거가 부족하면 가능한 의도를 확정하지 않는다.**

014

모범 답 의문문 /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 / 간접 발화

인정 기준·허용 답 의문문·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간접 발화의 세 요소를 모두 쓰면 인정한다.

과정 한 줄 묻는 형식 확인 → 짐을 든 상태와 동행 위치 확인 → 행동을 부탁하는 의도 파악

핵심 한 줄 **의문문으로 행동을 부탁하므로 간접 발화이다.**

---

015 **정답 ①**

① O 표현과 맥락을 함께 살펴 근거가 있는 의도를 해석한다.
② X 문장 유형과 의도가 다른 간접 발화를 놓친다.
③ X 청자의 행동 반응은 의도 해석의 단서이지 문장 유형을 바꾸는 근거가 아니다.
④ X 높임 표현은 정보 전달이나 질문 등에도 쓰인다.
⑤ X 현재 자료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전 경험만으로 의도를 정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표현·맥락의 근거 확인 → 과도한 추론을 한 설명 제외 → 근거 중심의 방법 선택

핵심 한 줄 **의도 해석에는 근거와 추론의 한계를 함께 밝혀야 한다.**

B1. '그것'은 물건일까, 앞의 이야기일까?

016

모범 답 가: 바닥에 놓인 노란 바구니 / 나: 강풍으로 배편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인정 기준·허용 답 가의 바구니와 나의 사건 전체를 구별하면 인정한다. 나를 '배편'만으로 쓰면 알려야 할 내용 전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현장의 손짓 확인 → 앞 발화의 사건 확인 → 지시·대용 범위 각각 적기

핵심 한 줄 **가리키는 범위가 물건인지 사건 전체인지 구별한다.**

범위 표시 가: 그것 → [현장의 노란 바구니] / 나: 그것 ← [강풍으로 배편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

017 **정답 ⑤**

① X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제안에 찬성한다.
② X 기존 순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꾸자는 내용이 대상이다.
③ X 민서가 발표를 맡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은 없다.
④ X 순서 변경과 발표 취소는 다른 내용이다.
⑤ O 찬성하는 대상은 앞말에 제시된 제안의 내용 전체이다.

과정 한 줄 앞말의 제안 내용 확인 → '그 제안'과 연결 → 찬성의 대상 범위 확인

핵심 한 줄 **대용 표현을 풀어 쓸 때는 대신하는 내용을 보존한다.**

범위 표시 그 제안 ← [발표 순서를 바꾸자는 제안]

018

모범 답 색연필을 상자에 넣었다.

인정 기준·허용 답 색연필을 명시하고 상자에 넣는 행동을 유지하면 인정한다. "그 색연필을 상자에 넣었다."도 인정한다. 공책을 넣는 문장은 지정된 대상을 바꾸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앞문장의 후보 두 개 확인 → 지정된 대상 확인 → 모호한 대용 표현을 구체적 명사로 교체

핵심 한 줄 **대상이 둘 이상이면 명사를 밝혀 연결을 분명히 할 수 있다.**

---

019 정답 ①

① O 가는 손짓의 대상인 컵, 나는 접수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받는다.
② X 가에는 앞말이 없고 현장 컵을 가리키는 손짓이 있다.
③ X 나는 앞에서 언급한 일정 변경의 사실을 받는다.
④ X 알려야 할 것은 접수 자체가 아니라 접수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이다.
⑤ X 가의 지시 대상은 이미 가리킨 컵이며 나의 '그 사실'은 접속 표현이 아니다.

과정 한 줄 지시 표현의 형태와 기능 구별 → 다양한 대용 범위 확인 → 맥락에 따른 기능 선택

핵심 한 줄 **표현의 형태와 담화에서의 기능을 구별한다.**

020

모범 답 예고하는 내용: 다음 행사에서 참가 신청을 미리 받자는 제안 / 내용의 위치: ㉠의 뒤

인정 기준·허용 답 다음 행사·참가 신청·미리 받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뒤라고 쓰면 인정한다. 자료와 같은 문장으로 인용해도 된다.

과정 한 줄 '이렇습니다' 뒤의 문장 확인 → 구체적인 제안 내용 연결 → 뒤 내용을 예고하는 기능 확인

핵심 한 줄 **가리키는 내용이 뒤에서 밝혀질 수도 있다.**

범위 표시 이렇습니다 → [다음 행사에서는 참가 신청을 미리 받자는 제안]

B2. 빼거나 이어도 뜻이 분명할까?

021 정답 ①

① O 화자가 어제 동생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는 뜻을 유지한다.
② X 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본 사실과 함께한 관계가 달라진다.
③ X 어제 본 일을 내일 볼 일로 바꾸었다.
④ X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는 제한을 자료에 없는 채 추가했다.
⑤ X 영화를 본 행동을 고른 행동으로 바꾸었다.

과정 한 줄 질문의 때와 행동 확인 → 답한 사람과 동반자 구별 → 제한을 더하지 않고 복원

핵심 한 줄 **생략 복원은 원래 역할과 뜻을 유지해야 한다.**

022

모범 답 가: 그래서 / 나: 그러나 / 다: 그리고

인정 기준·허용 답 각각 제시된 단어 중 맞는 것을 쓰면 인정한다. 가는 원인·결과, 나는 대조, 다는 추가의 관계이다.

과정 한 줄 두 문장의 의미 관계 확인 → 원인·결과·대조·추가 구별 → 해당 접속 표현 선택

핵심 한 줄 **접속 표현은 문장의 의미 관계에 맞추어 고른다.**

---

023 정답 ③

① X 이름 교체는 서술어 복원이 아니라 주체 변경이다.

② X 접속 표현을 넣는 것과 빠진 서술어를 복원하는 것은 다르다.

③ O 앞 질문의 반복되는 행동을 채우는 생략 복원이다.

④ X 짧은 답이어도 질문과 같은 주제를 유지하고 행동을 복원할 수 있다.

⑤ X 앞말에 이미 제시된 행동이므로 복원할 수 있다.

과정 한 줄 생략의 복원 가능성 확인 → 무조건적 설명 제외 → 반복을 줄이는 기능 선택

핵심 한 줄 **생략의 기준은 복원 가능성이다.**

024

모범 답 고친 표현: 그러나 / 앞뒤 관계: 여러 번 연습했다는 앞 내용과 달리 어려운 부분이 남았다는 대조 관계

인정 기준·허용 답 '그러나·하지만·그렇지만' 등을 인정한다. 관계 설명에는 연습했음과 어려움이 남음의 대조가 드러나야 한다.

과정 한 줄 연습과 남은 어려움의 관계 확인 → 자연스러운 결과와 다른 내용임을 확인 → 대조 표현으로 교체

핵심 한 줄 **겉으로 이어졌어도 접속 관계가 잘못되면 고쳐야 한다.**

---

025 정답 ①

① O 요구된 장비 종류가 공유되지 않았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

② X 질문은 장비 종류를 요구했을 뿐 특정 장비를 알려 주지 않았다.

③ X '저'는 응답자를 가리키며 장비 종류를 대신하지 않는다.

④ X 누가 가져올지에 답했으므로 일부는 질문과 관련 있다.

⑤ X 대화에서 '저'가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주체를 파악할 수 있다.

과정 한 줄 질문의 두 요구 확인 → 답에 나온 사람 정보 확인 → 장비 정보의 누락 확인

핵심 한 줄 **공유되지 않은 핵심 내용은 생략하지 않는다.**

B3. '그리고'만 붙이면 한 편의 글이 될까?

026

모범 답 문장 번호: [3] / 점검할 성질: 통일성

인정 기준·허용 답 [3]과 통일성을 모두 쓰면 인정한다. 달의 충돌구는 우산 보관 안내와 관계없다는 설명을 덧붙여도 된다.

과정 한 줄 글의 목적 확인 → 각 문장과 목적의 관련성 비교 → 벗어난 내용 찾기

핵심 한 줄 **통일성은 전체 주제와 목적에 비추어 판단한다.**

---

027 **정답 ④**

① X 구체적 명사지만 물을 주는 행동에 맞는 도구가 아니다.

② X 문제는 물을 주는 도구를 밝히는 것이므로 장소로 바꾸면 뜻이 달라진다.

③ X 대상을 밝히지 못하며 대조 관계도 제시되지 않았다.

④ O 도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두 후보 사이의 혼동을 줄인다.

⑤ X 앞문장은 씨앗 심기와 관련 있으며 삭제는 도구 정보의 연결을 해결하지 못한다.

과정 한 줄 대용 대상 후보 확인 → 물 주기 행동과 맞는 도구 확인 → 구체적 명사로 교체

핵심 한 줄 **대용 대상을 밝히면 응집성을 보완할 수 있다.**

028

모범 답 밤새 비가 내려 운동장이 젖었다. 그래서 오늘 체육 활동은 실내에서 한다.

인정 기준·허용 답 피자 관련 문장을 삭제하고, 앞의 원인에 따른 실내 활동을 '그래서·따라서' 등으로 이으면 인정한다.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합쳐도 된다. 운동장이 젖었다는 이유와 실내 활동이라는 결과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

과정 한 줄 주제와 무관한 문장 삭제 → 비로 젖은 상태와 실내 활동의 인과 관계 확인 → 접속 관계 수정

핵심 한 줄 **통일성과 응집성의 문제를 구별하면 고칠 곳이 선명해진다.**

---

029 **정답 ④**

① X 접속 표현만으로 두 내용에 근거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② X 정보 전달이라는 기능이 같아도 다루는 주제는 다를 수 있다.

③ X 서로 인과 관계가 없는 내용에 결과 표현만 붙여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④ O '그리고'가 있다고 내용의 통일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⑤ X 대용 표현으로 바꾸어도 별에 관한 내용이 분리배출과 관련되지는 않는다.

과정 한 줄 전체 목적 확인 → 접속 표시와 내용 관계 구별 → 주제 일관성 부족 판단

핵심 한 줄 **연결 표시의 존재와 좋은 연결은 같은 뜻이 아니다.**

030

모범 답 가: 통일성 — 노래 순위는 빗물 저장이라는 주제와 관계없다. / 나: 응집성 — '그것'의 대상과 '이쪽'의 장소가 불분명하다.

인정 기준·허용 답 가·나에 맞는 성질을 쓰고 각 근거가 드러나면 인정한다. 나는 대상 또는 장소의 불분명함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된다.

과정 한 줄 전체 주제와의 관련성 점검 → 가리키는 대상·장소의 명확성 점검 → 두 기준 구별

핵심 한 줄 **통일성은 주제, 응집성은 부분을 잇는 표현과 관계를 중심으로 본다.**

C1. 많이 말하면 협력한 것일까?

031 정답 ③

① X 자료는 알려 준 장소가 정확하다고 했으며 이 문항은 날짜 누락을 묻는다.

② X 제출 장소는 질문과 관련 있는 정보이다. 핵심 문제는 일부 정보가 빠졌다는 점이다.

③ O 질문에서 요구한 두 정보 중 날짜가 빠져 필요한 정보량을 충족하지 못했다.

④ X 알려 준 장소 표현이 모호하거나 순서가 뒤섞였다는 문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핵심은 날짜 정보의 누락이다.

⑤ X 필요한 정보 일부를 누락했으므로 양의 격률과 직접 관련된다.

과정 한 줄 질문이 요구한 두 항목 확인 → 답에 있는 장소와 빠진 날짜 구별 → 양의 격률 적용

핵심 한 줄 **필요한 정보가 빠졌으면 양의 격률을 점검한다.**

032

모범 답 질의 격률 / "내일 운영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 운영 일정을 확인해 볼게."

인정 기준·허용 답 질의 격률을 쓰고 미확인 상태를 밝히면 인정한다. 확인하겠다는 후속 제안은 다양한 표현을 인정하며, 반드시 영업 또는 휴관한다고 단정하는 답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확인하지 않았다는 조건 확인 → 근거 없이 확실하다고 단정하는 말의 문제 확인 → 불확실성을 밝힌 표현으로 수정

핵심 한 줄 **모를 때 모른다고 밝히는 것도 질의 격률을 지키는 방법이다.**

---

033 정답 ②

① X 답의 길이와 목적에 맞는 정보량은 같은 기준이 아니다.

② O 필요한 정보량은 각각의 질문과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③ X 절차를 요구했는데 시각만 말하면 필요한 내용이 빠진다.

④ X 시각만 필요한 상황에 요청하지 않은 절차를 더할 필요는 없다.

⑤ X 사실과 근거는 질의 기준이며 양은 요구된 정보의 충분함을 따로 본다.

과정 한 줄 대화 목적 확인 → 필요한 정보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 → 고정 길이 기준 배제

핵심 한 줄 **양의 격률은 대화 목적을 기준으로 충분함을 판단한다.**

034

모범 답 오후 4시에 시작해.

인정 기준·허용 답 오후 4시를 정확하게 알리고 불필요한 개인 일과를 빼면 인정한다. "오후 4시야."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질문이 요구한 시작 시각 확인 → 불필요한 개인 일과 제외 → 필요한 정보만 유지

핵심 한 줄 **사실인 정보도 목적에 불필요하면 줄일 수 있다.**

---

035 **정답 ②**

① X 다른 전시의 사례만으로 이번 전시의 입장료를 확정할 수 없다.

② O 정보가 없는 상태를 정확히 밝히고 확인 방법을 제안했다.

③ X 시설 성격만으로 무료라고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④ X 친구의 관람 사실은 가격이 오천 원이라는 근거가 아니다.

⑤ X 날짜·장소 정보가 입장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과정 한 줄 가격 미확인 조건 확인 → 근거 없는 단정 제외 → 불확실성과 확인 필요를 밝힌 답 선택

핵심 한 줄 **확신의 강도는 근거의 수준과 맞아야 한다.**

C2. 관련 있는 말이면 충분히 분명할까?

036

모범 답 관련성의 격률 / 반납함 위치를 묻는 질문에 관계없는 영화 취향을 답했다.

인정 기준·허용 답 관련성의 격률과 질문·답변의 불일치를 함께 쓰면 인정한다. 관련의 격률이라는 명칭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질문의 주제 확인 → 답변의 주제 확인 → 둘의 관련성 부족 판단

핵심 한 줄 **말이 분명해도 주제와 무관하면 관련성의 문제가 있다.**

---

037 **정답 ⑤**

① X 제출 방법이라는 주제는 유지하며 문제는 대상의 모호함이다.

② X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시 대상을 흐리게 표현했다.

③ X 화자가 자신의 부담을 맡는 표현은 없으며 설명의 모호함을 해결하지 못한다.

④ X 반복 횟수가 필요한 정보의 충분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⑤ O 관련 있는 내용이라도 대상이 모호하면 표현을 분명히 고쳐야 한다.

과정 한 줄 답변이 다루는 주제 확인 → 두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점 확인 → 명료함 중심의 태도 격률 적용

핵심 한 줄 **관련 있는 답변도 모호하면 고쳐야 한다.**

038

모범 답 먼저 작성한 신청서를 1번 창구에 제출하세요. 그다음 같은 창구에서 접수증을 받으세요.

인정 기준·허용 답 신청서·1번 창구·제출·접수증·받기의 정보와 순서를 유지하고 두 문장으로 쓰면 인정한다. 높임의 정도가 달라도 뜻이 분명하면 된다.

과정 한 줄 모호한 대상·장소 확인 → 실제 절차와 대응 → 순서에 맞게 두 문장으로 표현

핵심 한 줄 **태도의 격률은 무엇을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하는지 분명히 하는 데 적용된다.**

---

039 **정답 ②**

① X 이것은 질의 격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② O 표현의 명료함·간결함·질서는 태도의 격률의 기준이다.

③ X 이것은 양의 격률의 기준이다.

④ X 이것은 관련성의 격률의 기준이다.

⑤ X 이것은 공손성의 요령이나 소극적 체면과 관련된 기준이다.

과정 한 줄 태도 격률의 뜻 확인 → 일반적인 예절·동의와 구별 → 표현 방식의 기준 선택

핵심 한 줄 **태도의 격률에서 '태도'는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040

모범 답 가: 관련성 — 물은 길과 관계없는 운동화 이야기를 했다. / 나: 태도 — '저기·그쪽·그게'가 가리키는 장소와 방향이 모호하다.

인정 기준·허용 답 가의 관련성·주제 이탈, 나의 태도·장소와 방향의 모호함을 각각 쓰면 인정한다.

과정 한 줄 가의 주제 이탈 확인 → 나의 표현 모호성 확인 → 관련성과 태도 구별

핵심 한 줄 **무엇을 말하는가와 어떻게 분명히 말하는가는 구별된다.**

C3. 바로 답하지 않으면 소통에 실패한 걸까?

041 **정답 ④**

① X 남은 과제는 지금 공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② X 자료에는 남은 과제를 말했을 뿐 거절을 직접 밝힌 표현은 없다.

③ X 친구에게 함께 과제를 하자고 요청하는 단서는 없다.

④ O 제출 시각과 남은 과제, 계속 작업하는 행동이 현재 참여의 어려움과 연결된다.

⑤ X 지금의 어려움은 해석할 수 있지만 이후 참여 약속은 제시되지 않았다.

과정 한 줄 제안의 내용 확인 → 곧 닥친 과제와 행동 연결 → 현재 참여의 어려움 해석

핵심 한 줄 **간접 답변도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뜻을 전달할 수 있다.**

042

모범 답 말에 드러난 사실: ⓐ / 짐작할 수 있는 뜻: ⓑ / 지나친 판단: ⓒ

인정 기준·허용 답 ⓐ·ⓑ·ⓒ를 세 항목에 각각 바르게 대응하면 인정한다. ⓑ는 색깔만 좋게 평가한 말에서 짐작하는 뜻이며 확정된 사실은 아니므로 '~일 수 있다'로 표현한다.

과정 한 줄 직접 드러난 색깔 평가 확인 → 다른 점에 대한 가능한 해석 구별 → 근거 없는 고장 판단 제외

핵심 한 줄 **말에 드러난 사실·짐작할 수 있는 뜻·지나친 판단을 구별한다.**

---

043 **정답 ②**

① X 다른 일정은 지금 참여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이다.

② O 곧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정은 지금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③ X 평서문으로 사정을 알려 간접적인 거절을 전할 수 있다.

④ X 동행을 요청하는 단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X 사정 설명만으로 일정 뒤의 참석 약속까지 도출할 수 없다.

과정 한 줄 직접성 여부와 관련성 구별 → 공유된 맥락의 역할 확인 → 가능한 의사소통 기능 판단

핵심 한 줄 **직접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소통 실패를 판정하지 않는다.**

044

모범 답 그러면 내일 오전 벽화 그리기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이니?

인정 기준·허용 답 내일 오전 참여 가능 여부를 명시하며 상대에게 확인하면 인정한다. “가족 일정이 있어도 잠깐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 줄래?”도 가능하다. 상대가 이미 불참을 확약했다고 단정하는 문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간접 답변의 가능 의도 파악 → 인원 확정 필요 확인 → 참여 여부를 명시한 확인 질문 작성

핵심 한 줄 **결정이 필요하면 간접 의도를 확인 질문으로 분명히 한다.**

---

045 **정답 ③**

① X 소음이 녹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련성이 있다.

② X 음악 취향에 대한 정보는 없다.

③ O 소리가 전달된다는 조건이 녹음 정보와 합주 가능 여부를 연결한다.

④ X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⑤ X 현재 장소와 시점의 제약을 모든 장소와 미래로 확대할 근거가 없다.

과정 한 줄 합주 가능 여부 질문 확인 → 현재 녹음과 방음 조건 연결 → 현재 합주의 어려움 해석

핵심 한 줄 **간접 의도의 범위는 제시된 시간·장소·상황에 맞춘다.**

D1. 부담을 줄일까, 내가 맡을까?

046

모범 답 가: 요령 — 상대에게 요구하는 확인 범위를 줄였다. / 나: 관용 — 화자가 남은 정리 일을 맡겠다고 했다.

인정 기준·허용 답 두 격률의 대응과 상대의 부담 축소·자신의 부담을 맡는다는 근거가 모두 드러나면 인정한다.

과정 한 줄 가에서 요구 범위 확인 → 나에서 일을 맡는 주체 확인 → 상대 중심·자기 중심 구별

핵심 한 줄 **요령과 관용은 배려를 드러내는 표현의 초점으로 구별한다.**

---

047 **정답 ④**

① X 상대의 응답 부담을 줄이는 요령에 더 직접적으로 초점이 있다.
② X 상대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찬동에 초점이 있다.
③ X 자신에 대한 칭찬을 낮추는 겸양에 초점이 있다.
④ O 화자가 자신의 작업 부담을 맡겠다고 명시했다.
⑤ X 상대 의견과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동의에 초점이 있다.

과정 한 줄 각 표현에서 조정하는 대상 확인 → 자신의 역할과 부담을 맡는 발화 찾기 → 관용 선택

핵심 한 줄 **'내가 맡겠다'는 부담을 맡는 것은 관용을 판단하는 직접 근거이다.**

048

모범 답 다음 주까지 가능하실 때 자료의 오탈자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정 기준·허용 답 즉시 전체 검토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 주까지라는 기한과 오탈자 확인이라는 줄인 범위를 모두 반영하면 인정한다. 다른 자연스러운 부탁 표현도 가능하다.

과정 한 줄 원래 요구의 시간·범위 확인 → 실제 가능한 기한과 검토 범위 반영 → 상대 부담을 줄인 요청 작성

핵심 한 줄 **요령은 실제 요구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

049 **정답 ⑤**

① X 효과만 보고 자신의 부담을 맡는 표현의 초점을 놓친 설명이다.
② X 자신을 칭찬하는 내용이 없으며 겸양은 자기 칭찬을 줄이는 방향이다.
③ X 가의 의견을 논의하는 상황보다 남은 일을 자신이 맡는 표현이 중심이다.
④ X 상대의 솜씨를 평가한 표현이 없다.
⑤ O 배려 효과는 겹칠 수 있으나 '내가 할게'라는 표현의 초점은 자신의 부담이다.

과정 한 줄 두 격률의 초점 확인 → 효과의 겹침 인정 → 표현 중심으로 판별

핵심 한 줄 **격률의 구별은 효과를 억지로 갈라놓는 일이 아니다.**

050

모범 답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정 기준·허용 답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밝히고 재설명을 요청하면 인정한다. 상대의 잘못만 지적하거나 자료에 없는 자신의 잘못을 지어내는 답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이해하지 못한 상황 확인 → 자신 쪽의 어려움으로 표현 → 다시 설명을 요청

핵심 한 줄 **문제의 원인을 자신 쪽으로 돌려 말하는 것도 관용의 격률을 드러낼 수 있다.**

D2. 칭찬·겸손·동의는 같은 배려일까?

051 정답 ①

① O 상대가 한 설명의 구체적인 장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② X 자신이 부담을 맡는 관용에 초점이 있다.
③ X 상대의 부담을 줄이는 요령에 초점이 있다.
④ X 자기 칭찬을 줄이고 겸손하게 말하는 겸양에 초점이 있다.
⑤ X 의견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동의에 초점이 있다.

과정 한 줄 각 발화의 초점 확인 → 상대 행동의 장점 평가 찾기 → 찬동으로 판단

핵심 한 줄 **찬동은 상대에 대한 긍정 평가를 중심으로 구별한다.**

052

모범 답 가: 찬동 / 나: 겸양 / 다: 동의

인정 기준·허용 답 세 격률을 정확하게 대응시키면 인정한다. 가는 상대 평가, 나는 자기 평가, 다는 의견 조정이라는 근거를 덧붙여도 된다.

과정 한 줄 평가·조정의 대상 확인 → 상대·자기·의견 구별 → 격률 대응

핵심 한 줄 **같은 배려라도 무엇을 조정하는지에 따라 격률이 다르다.**

---

053 정답 ⑤

① X 공손하게 말했어도 핵심 체험을 남기려는 화자의 의견과 다르다.
② X 자기를 낮추었지만 필요한 체험을 남기자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③ X 상대를 칭찬하는 데 그쳐 화자의 구체적인 의견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X 체험 유지 의견은 맞지만 시간을 줄일 필요에도 동의한다는 조건을 바꾸었다.
⑤ O 공통 목표와 실제 의견 차이를 함께 드러냈다.

과정 한 줄 공통 목표 확인 → 남기려는 체험 확인 → 동의와 차이를 함께 표현한 답 선택

핵심 한 줄 **의견의 공통점을 인정하면서 차이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054

모범 답 제가 계획을 세웠지만 동료들이 제작과 설치를 잘해 준 덕분에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인정 기준·허용 답 자신의 계획 역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료의 제작·설치 기여를 인정하고 자기 공로만 내세우지 않으면 인정한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처럼 사실과 다른 답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실제 역할 분담 확인 → 과도한 자기 칭찬 줄이기 → 다른 사람의 기여를 사실대로 반영

핵심 한 줄 **겸양은 실제 기여를 거짓으로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

055 **정답 ②**

① X 공통점을 인정하면서 차이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② O 배려하는 표현과 정확한 정보 전달은 함께 가능하다.

③ X 자기 칭찬을 줄이는 것과 사실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

④ X 찬동은 상대 평가, 동의는 의견의 일치와 차이를 중심으로 구별한다.

⑤ X 상대의 요구 조건을 줄이는 표현은 요령에 더 직접적으로 초점이 있다.

과정 한 줄 공손성의 목적 확인 → 과장·거짓·무조건적 찬성 배제 → 사실과 배려의 병행 선택

핵심 한 줄 **배려는 사실을 흐리거나 자기 의견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D3. 관계를 배려하면 언제나 같은 말을 써야 할까?

056

모범 답 자료를 정리하느라 수고했어. 마지막 표의 합계 한 곳은 다시 확인해 보면 좋겠어.

인정 기준·허용 답 노력을 인정하고 오류의 범위를 마지막 표의 합계 한 곳으로 한정하면 인정한다. 인격 비난을 남기거나 자료 전체가 틀렸다고 확대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노력과 오류를 구별 → 사람 전체에 대한 비난 제거 → 확인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요청

핵심 한 줄 **체면을 배려하면서도 구체적인 오류는 지적할 수 있다.**

---

057 **정답 ④**

① X 이번에 처음 약속한 신호와 공동체에 자리 잡은 관습을 구별해야 한다.

② X 주문 인원을 확인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정보 질문으로 쓰일 수 있다.

③ X 관계·매체·목적이 바뀌면 부담이나 적절성도 달라질 수 있다.

④ O 관습은 공유된 방식이지만 실제 쓰임에는 맥락이 작용한다.

⑤ X 체면과 관습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과정 한 줄 공동체의 공유 방식 확인 → 관계·상황에 따른 차이 고려 → 보편적 고정 규칙이라는 판단 배제

핵심 한 줄 **담화 관습은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사용한다.**

058

모범 답 번거롭겠지만 인쇄 일정 때문에 오늘 오후 5시까지 제목의 오탈자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께 부탁할 수 있으니 알려 주세요.

인정 기준·허용 답 부담을 인정하는 표현, 오늘 오후 5시 기한, 제목 오탈자 확인, 어려울 경우 거절 또는 조정 가능성의 네 요소를 포함하면 인정한다. 한두 문장 조건에 맞게 연결하여 쓴다.

과정 한 줄 실제 기한과 필요한 작업 확인 → 부담 인정 → 가능한 대안을 밝혀 요청

핵심 한 줄 **배려하는 말과 실제 요구 조건이 일치해야 한다.**

---

059 **정답 ⑤**

① X 노력의 인정과 합계의 정확성은 별개이며 합계는 다시 확인하자고 했다.

② X 함께하자는 제안이지 혼자 부담을 맡겠다고 한 말은 아니다.

③ X 노력에 대한 평가와 점검 제안이며 상대의 특정 의견에 찬성한 상황은 아니다.

④ X 특정 내용의 점검과 사람 전체에 대한 비난을 구별해야 한다.

⑤ O 적극적 체면을 배려하면서 예산 합계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한다.

과정 한 줄 노력 인정 표현 확인 → 검토 범위 확인 → 존중과 정확성의 병행 판단

핵심 한 줄 **체면 배려는 지적의 범위와 표현 방식을 조정하는 일이다.**

060

모범 답 가: 안부를 묻는 인사 / 나: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질문 / 까닭: 같은 표현도 인사 관습과 실제 대화 목적 등 맥락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인정 기준·허용 답 가의 인사 기능과 나의 실제 정보 확인을 구별하고 목적·관습·상황 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설명하면 인정한다. 이 표현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인사라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각 상황의 목적 확인 → 관습적 인사와 실제 질문 구별 → 맥락 차이 설명

핵심 한 줄 **관습적인 표현도 실제 기능은 상황에서 확인한다.**

개념·문항 연결표

개념ID	개념	설명 묶음	문항
문법08-01	발화	A1 · A3	001~005, 011~015
문법08-02	담화	A1	001~005
문법08-03	맥락	A2 · A3 · C3	006~015, 041~045, 060
문법08-04	담화를 잇는 표현	B1 · B2	016~025
문법08-05	통일성	B3	026~030
문법08-06	응집성	B3	026~030
문법08-07	협력의 원리	C1 · C2 · C3	031~045
문법08-08	공손성의 원리	D1 · D2	046~055
문법08-09	체면 유지	D3	056, 058~059
문법08-10	담화 관습	D3	057, 060

※ 한 문항이 여러 개념을 함께 다룰 수 있다.